

권력 욕망에 함몰된 조선시대 사림의 이상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이정철 지음

“전라도내 명산과 사대부 가문의 묘가 있는 산을 막론하고 모두 불사르라!”

1589년 음력 10월, 선조의 역모를 피한다고 의심한 정여립(1546~1589)을 전라도내 온 산을 불살라서라도 잡아오라는 추상같은 명령을 내린다.

정여립은 진안현내 죽도(현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로 피신해 체포하려 온 관군과 대치하다 자결한다. 이 사건과 연루돼 115명이 죽었고 귀양 29명, 수감 54명, 파직 34명의 정치적 희생자가 나왔다. 기축옥사(己丑獄事)이다. 하지만 4개월 후 서훈은 “정여립 사건의 근본원인이 국정과 민생문란에서 비롯됐고, 백성의 악화에 있지 않다”는 장문의 상소문을 올린다.

이정철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이 최근 펴낸 ‘왜 선한 정치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는 조선 선조대 당쟁(당쟁정치)의 사실을 엄밀하게 밝히며 현재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선조 8년(1575년) 미해결 살인사건에서 비롯된 ‘동서분당’부터 기축옥사가 일어나고 일단락된 선조 23년(1590년)까지 15년간의 당쟁을 살펴본다. 이에 대해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 시대만큼 정치에서 이상(理想)이 드높이 외쳐진 시대도 드물었다.



1575년(선조 8)부터 1590년(선조 23)까지 15년간 당쟁이 펼쳐진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이 시대만큼 정치에서 이상이 드높이 외쳐진 때도 드물었다. 정여립과 이몽학을 모티브로 한 영화 ‘구르름 비서난 달처럼’(감독 이준익) 한 장면.

그럼에도 그 결과는 몹시 비극적이었다”고 이유를 밝힌다. 일제 강점기때 일본인 학자들이 당쟁을 조선인의 부정적 민속성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했지만 저자는 당쟁을 권력현상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저자는 “왜 도덕적, 정치적 이상에 대한 사림(士林)의 오랜 집단적 열망이 그들 중 누구도 원치 않았던 거대한 파국으로 귀결됐는지 알고 싶었다”고 강조한다. ‘동서분당의 프레임에서 리더십을 생각한다’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1부 사림의 분열: 사림의 정치화 ▲2부 이이의 시간: 사림의 이상, 정치의 현실 ▲3부 선조의 시간: 나는 어느 쪽이 옳다

고 말한 적이 없다 등으로 나눠 선조 때 발생한 당쟁의 시말을 들여다본다. 또한 동서분당 이전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 전사(前史)를 설명하고, 당쟁 관련 인물사전을 첨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나주 향리가문 출신 근재 정개정(1529~1590) 역시 기축옥사 희생자였다. 저자는 “정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향리(鄕里), 즉 지방 고을내의 주도권을 둘러싼 지역적 갈등일 뿐만 아니라 신분적 갈등임과 동시에 당대의 학문적 경향 사이의 갈등이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정개정이 사망한 지 2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당쟁에 집착한 왕이나 사림 모

두다가를 과국은 대비하지 못했다. 도덕적 확신과 정치적 이상으로 무장한 사림이 왜 세로 분열하듯 서로 싸우고, 분열했을까? 저자는 “선조대 정치 세력간 분열은 정치적 욕망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다른 일부는 도덕적 확신에 따른 행동의 결과이기도 했다. 도덕적 확신에 찬 사림은 결국 그보다 더 강력했던 권력에 대한 욕망의 자장(磁場)으로 빨려들고 마침내 함몰되었다”고 결론짓는다. 민생보다 정치논리를 우선적으로 내세워 각을 세우는 요즘의 여야 역시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너머북스·2만9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일상을 파고드는 낯설고도 매혹적인 75가지 생각

생활의 사상

서동욱 지음



하나 하나 이야기하며 읽고 싶은 에세이가 나왔다. 저자는 ‘일상을 파고드는 낯설고도 매혹적인 75가지 생각’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의 지팡이’를 건네준다. 철학, 문학, 미술, 음악, 종교를 비롯해 우리가 늘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삶의 이야기를 색다른 시각에서 풀어낸 책은 생각의 폭을 넓혀줌 뿐 아니라, “생각은 아주 더디고 힘들게 움직인

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방향을 찾기 위한 나침반이 되어 주고, 오로지 옳은 길과 그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생각의 노동’뿐이다. 그 생각의 노동으로 길을 조금씩 만들며 어디로 가야할 지 조금씩 배우는 게 우리의 생활이다. 그렇다고 생활이 사상처럼 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사상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투명한 몸을 버리고 구체적인 삶

의 색깔을 찾아야 하리라. 이 책은 그렇게 ‘생활이 된 사상’의 이야기이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이자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시인과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동욱씨가 펴낸 에세이 ‘생활의 사상’은 인문학, 예술, 사회, 삶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진지하면서도, 또 너무 무겁지 않게 글을 전개해 재미있게 읽힌다. 1부는 ‘인문학’이 주제다. ‘내가 읽은 스피노자’, ‘책을 읽는 네가지 방법’, ‘탐구자 이세돌 또는 교육으로서의 바둑’, ‘새로움이 주는 피로’ 등의 글을 통해 세상을 읽는 시선을 보여준다. <민음사·1만50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금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임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

새로 나온 책

- ▲기후를 예측하다=거침없이 도전한 여성 과학자 시리즈. 여성 과학자이자 세계적인 기후과학자인 이네즈 펑의 연구와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책이다. 이네즈 펑은 바람, 해류, 비, 구름에 관한 자료를 컴퓨터로 분석해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는 기후 과학자다.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을 보여준 그녀의 기후 모델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해나무·1만2000원>
- ▲모두가 부서진=라디오 작가로도 꾸준히 활동해온 조수경 작가의 첫 소설집. 그간 발표한 소설들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서사를 구사하는 데 탁월함을 보여줬으며, 인간 사회의 어둠과 추한 민얼굴에 주목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이번 소설집에서 작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모두가 조금씩 부서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면면, 그 안에 도사린 등골 서늘한 균열들에 집중한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 ▲라이프 트렌드 2017: 적당한 불편=딱딱한 지표와 통계 대신 우리 일상을 통해 내년의 트렌드를 보여 주는 생활·문화 전용 트렌드서. 2013년 ‘좀 놀아 본 오빠들의 귀환’, 2014년 ‘그녀의 작은 사치’, 2015년 ‘가면을 쓴 사람들’, 2015년 ‘그들의 은밀한 취향’에 이어 ‘라이프 트렌드 2017’에서는 ‘적당한 불편’을 핵심 키워드로 다룬다. 돈으로 불편을 사는 사람들, 감수할 만한 불편을 새로운 매력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숨은 욕망을 포착했다. <부키·1만6000원>
- ▲별처럼 꽃처럼=평생을 시골에 묻혀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굽어보면서 산 나태주 시인이 ‘천국의 소식을 알려주는 메신저’이기도 한 꽃과 관련된 시를 모아 꽃시집 ‘별처럼 꽃처럼’으로 엮었다. 200여 편이 훌쩍 넘는 많은 시편들은 창작 연도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2016년작부터 1970년작까지, 시인이 지난 40여 년간 꽃을 노래한 시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인의 삶과 함께해온 꽃시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덤이다. <푸른길·1만6000원>

▲카카오와 초콜릿 77가지 이야기=초콜릿에 대한 지식을 77가지 이야기로 풀어낸다. 초콜릿의 원료, 제품의 법적 규격, 초콜릿의 성분 같은 딱딱한 내용부터 초콜릿과 사람의 관계, 초콜릿과 노벨상의 관계 같은 가십성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사전이나 블로그의 글처럼 아무 곳이나 내키는 대로 읽어도 좋고,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나가도 좋다. 초콜릿에 대한 이슈를 읽다 보면 어느새 초콜릿에 대한 지식의 체계가 잡힐 것이다. <한울·2만원>

어린이·청소년 책

- ▲플로렌스의 수상한 정원=리투아니아의 국민 작가 K.카스파라비치우스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검은 장미를 만들어 내놓으라는 여왕의 주문에 애를 먹는 정원사 꿈 플로렌스의 신비한 이야기를 다룬 동화로, 명화를 보는 듯 아름답고 섬세한 일러스트와 아이, 어른 모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스토리가 매력적이다. <상상스쿨·1만1800원>
- ▲소녀 진달래의 사춘기 파티=이제 막 사춘기를 겪기 시작한 열두 살 소녀 진달래의 성장 과정을 열다섯 편의 짧은 이야기로 담아낸 창작동화.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알차게 담아내고 있어서, 초등 고학년 소녀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도록 힘을 실어 준다. <별숲·1만500원>
- ▲레드맨 우리가 도와줄게!=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에 연재했던 ‘레드맨 우리가 도와줄게!’가 책으로 나왔다. 레드맨을 주인공으로 한 열다섯 편의 만화화



읽으며 핵발전소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헤쳐 나간다. 핵발전소의 진실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신개념 탈핵 교과서다. <보리·1만2000원>

▲당근 먹는 사자 네오 2=당근 먹는 사자 네오의 두 번째 모험 이야기. 이번에는 나 자신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으로 가치를 확대시킨 한 발 성장한 모험기가 펼쳐진다. 모험지도를 손에 넣게 된 네오 일행은 또다시 모험을 떠나기로 한다. 지도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오오루의 걱정은 접어두고, 네오는 재미가 더 중요하다며 주저하지 않고 모험을 떠난다. <노란돼지·1만3800원>